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차세대 인문사회학 육성 프로그램 귀국보고서

서울대학교 국제하계강좌

## 양식 2-2 (자기평가 한국어판)

문화자원학연구전공 석사 1학년 스즈키 에카

파견형태: 추천프로그램

### 1) 당초의 계획개요

석사논문의 주제를 "일본 근대 조각과 동아시아 식민지 시기의 대만과 한국" 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도서관과 서울 시내에 있는 미술관 및 박물관을 견학할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연구가 적은 한국 근대미술사에 관한 자료수집을 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하계강좌 중에서 “근대한국의 역사와 문화 / History and Culture of Modern Korea (영어 강의)”와 한국어 어학수업을 수강하여, 기초적인 한국근현대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한국어 어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2) 실제로 달성한 성과

하계강좌 수강생들은 수강증으로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도서관내에 있는 설비를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 잡지 등은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으며, 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PC로 PDF 파일을 열람,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자료수집도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아트 스페이스 등을 견학하고, 한국 미술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됐으므로, 지금까지 별로 경험이 없었던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듣기 쉽지 않은 한국 근현대사의 수업도, 기본개념을 정리해 주고, 현재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불러 일으켜준 내용이였다. 일본에서 중급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한국어 어학수업 수준도 적절했다. 하계강좌에는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 학생들도 많이 참가했기 때문에, 한국어 사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 3)소감

제 연구에도 인생에도 큰 자극을 받았던 5 주간이었습니다.

제 전공이 한국사도 한국어도 아니었지만, 3 년정도 한국어를 공부해 왔고 한국에 몇번이나 여행을 가 본 적도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회가 있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한 후에 이 프로그램의 모집 공고문을 봤을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파견생에 지원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하계강좌는 모두 영어로 진행됐으므로 한국어 수업은 선택 과목으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본이나 아시아에 관련된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 그다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 보고 싶다는 의욕만을 갖고 지원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영어와 관련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수업 내용과 한국 근대사에 대해, 관심과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고 교수님께서도 잘 신경을 써 주신 덕분에, 수업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영어 프레젠테이션과 시험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하계강좌를 통해 느낀 것은 일본사나 아시아 연구 등, 영어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한 번 영어권에 나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본 국내에서 자족하고 있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일본에 대한 인문학의 연구도 아시아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으로 특히 영어권에서도 연구 논문이 대량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큰 인상을 받은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연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안에서 학교나 현지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이나 유럽, 싱가포르 등 다양한 나라에서 와 있었으며, 학생들은 모두가 서울에서 지내는 여름 방학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이 학부생이었지만, 저도 저보다 연배가 어린 사람들에게서 큰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나 현지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조금 불안감이 있더라도, 20 대 초반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 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그램에서 뵈 분들, “차세대 인문사회학 육성 프로그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